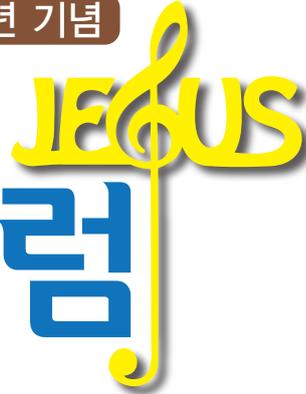


한국교회음악협회 창립 70주년 기념

제 14차

학술 포럼



주제 한국교회음악협회: 회고와 전망

- 발 제 1 : 이문승 명예교수
- 발 제 2 : 하재송 교수
- 패널토론 : 발제자, 박신화 교수, 양정식 교수

일시 | 2021 **11월 27일** (토) 오전 10시

‘한국교회음악협회’ 유튜브 채널 실시간 스트리밍

주관 |  한국교회음악협회 학술분과위원회

모시는 글

한국교회음악협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제14차 학술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1차 교회음악 심포지움이 1964년 개최된 이후 본 협회는 지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학술포럼을 개최하며 학술적인 교회음악의 연구와 더불어 교회음악 전공의 현실, 교회음악 지도자의 현황과 제도, 찬송가의 한국화, 남북한이 함께 부를 노래 등 교회음악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교회음악 발전을 위한 연구를 거듭해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70주년을 기념하는 다른 행사들도 개최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학술포럼만 개최하게 된 것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이 포럼은 지난 70년간의 교회음악협회 행적을 회고하면서 앞으로 발전의 길을 제시하는 유의미한 토론의 장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정상적이지 못하게 드러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분명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찬양이 만족스럽지 못하였으나 곧 찬양대가 일상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그동안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찬양을 더 정성스럽게 드리며 큰 영광을 돌릴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학술포럼의 발제를 맡아 주신 이문승 고문님과 하재송 학술분과위원장님, 그리고 패널로 수고해 주시는 양정식 이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열리는 포럼이 하루 행사가 아닌 교회음악의 과거를 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시금석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사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교회음악 동역자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학술포럼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27일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장 박 신 화

목 차

모시는 글	02
목 차	03
순 서	04
참여하신 분들	05
발표와 토론	
-주제: 한국교회음악협회: 회고와 전망	
- 발제 1: 이문승 명예교수	06
- 발제 2: 하재송 교수	13

순서

‘한국교회음악협회’ 유튜브 채널 실시간 스트리밍

인사말씀 10:00

발표와 토론

-주제: 코로나 시대의 교회음악 사역

- 발제 1: 이문승 명예교수

- 발제 2: 하재송 교수

- 패널토론: 발제자, 박신화 교수, 양정식 교수

광고와 폐회 12:00

참여하신 분들



이문승 명예교수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및 동대학원 졸업(나운영, 나인용, 박재열)
- 독일 Essen Folkwang Musik Hochschule 수료(N.A. Huber)
- 영국 London College of Music, FLCM Diploma(Allerby)
- Canada, Christian College에서 명예음악박사(HDM)
- 한국교회음악협회 고문
- GCM성가 고문
-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명예교수



하재승 교수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졸업
- 미국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졸업(교회음악석사, 음악박사)
- 미국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강사 및 겸임교수(Adjunct Professor) 역임
- **현**,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 HIM Chamber Choir 상임지휘자
창신교회 협동목사 겸 호산나찬양대 지휘자
한국복음주의교회음악학회 회장,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



박신화 교수

-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장
- 이화여대 교수 및 음악대학장
- 영락교회 갈보리찬양대 지휘자
- 이화첼버라이어 지휘자
- 극동방송 '성가 산책' 진행자
- 2022 월드콰이어게임 예술위원장
- 연세대 및 동 대학원 졸업
- 미국 콜로라도 대학원 졸업 (합창지휘학 박사)
- 108장의 합창 CD출반,
- 저서: 합창에 관한 질문과 응답, 합창문헌(I, II), 찬양대원을 위한 가이드 북, 합창 테크닉
- 2020 대한민국 기독교예술대상, 2021 콜로라도 음대 자랑스런 동문상



양정식 교수

-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졸업(BA)
-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졸업(BA)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회신학대학원 졸업(M.Div)
- 미국 웨스트민스터합창대학원 교회음악석사(지휘/작곡) 졸업(MM)
- 미국 클레어몬트음악대학원 교회음악박사(지휘전공) 졸업(DCM)
- 미국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강사 역임
- 미국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음악감독 역임
- **현**,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 Ensemble Mission Choir 상임지휘자
신촌성결교회 베다니찬양대 지휘자,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 한국복음주의교회음악학회 총무

발 제 1

한국교회음악협회-지난 70년을 돌아보며...

이 문 승 명예교수

(본회 고문, 역사편찬분과위원장, 1986년부터 중앙위원, 이사)

시작, 그리고 협회의 발전

1. 창립

한국교회음악협회는 6.25가 발발된 지 1년이 지나 혼란스럽던 1951년 7월 15일, 피난지 부산에 있던 국제구락부(국제Club)에서, 이동훈(1922-1974), 장수철(1917-1966), 김노현(1920-1993) 등이 모여 창립을 결의하고 당시 교계에 지명도가 있었던 YMCA총무 김치묵 목사(1910-1979)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박학전 목사를 부회장으로, 후에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던 황성수 박사를 고문으로, 매우 활동적이었던 윤심원을 총무로 하여 조직되었다.

2. 창립 초기의 활동

1951-53년은 전쟁 중이었고 피난을 간 어려운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협회 구성원들은 적극적이며 열정적으로 다양하게 교회음악 활동을 펼쳤다.

초기 1951-53년의 주요 활동을 보면, 이동훈의 지휘로 1951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대 연주회를 개최(헨델의 메시아연주)하였고, 이듬해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하여 큰 교회를 중심으로 연합성가대를 구성하여 함께 찬양하였다. 1952년 8월23일 협회 창립1주년 기념음악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1953년 가을, 서울로 수복하여 김노현의 제의로 서울 시내를 순회하며 찬양의 열기를 더하였다.

한국교회음악협회는 초기부터 악보 보급, 출판, 교회음악 강습회, 중,고등부 성가합창 경연대회, 성가합창연주회, 교회음악 감상회, 순회연주회 등 활동과 각 교회의 교회음악 지원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신앙 부흥운동 및 교회음악인의 상호 결속을 돈독하게 하였다.

3. 초기 중앙위원들

김치목(1910-1979), 박학전, 황성수(1917-1997), 윤심원, 김상익(1923-1989),
 박재훈(1922-2021.8.2.), 이동훈(1922-1974), 장수철(1917-1966), 김노현(1920-1993),
 한인환(1914-?), 박태준(1900-1986), 나운영(1922-1993), 곽상수(1923-2013),
 구두회(1921-2018), 박원정(1904-1965), 박지원, 김두완(1926-2008), 김정해(1927-1987),
 김종일(1923-1989), 김순세(1931-2008), 서수준(1913-2008), 이남철, 이삼은(1920-1972),
 이유선(1911-2005), 손운열(1925-), 최성진(1914-1988), 황임춘

4. 전통있는 교회음악 세미나

제1회 교회음악 강습회는 1968년(박태준)에 시작되어 1979년(서수준)까지 12회를 맞았고 교회음악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실기 및 이론 과목으로 교과과정을 만들고 1980년 제1회 교회음악 하계대학(구두회)으로 개칭하여 1996년(윤학원)까지 이어졌다. 1997년(윤학원)에 지금의 교회음악 하계대학 획기적 합창세미나로 확대, 개편되어 2019년까지 40회를 개최, 총52회에 이르렀다.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연기되었다.

* 강의 내용은 주로 지휘법, 성가곡 소개, 반주법, 음악이론, 발성법, 성가대 운영법 등 교회음악 이론이었으며 성가곡을 소개하고 연주법을 알리는 것이 중심이었다. 세미나의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 수강자의 요구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고 내용이 다양해졌다.

* 2006년부터 현재까지 교회음악 하계대학 획기적 합창세미나

2006. 30-8. 2	제27회 교회음악하계대학 획기적 합창세미나, 영락교회 베다니홀, 950명
2007. 30-8. 2	제28회 교회음악하계대학 획기적 합창세미나, 영락교회 베다니홀, 887명
2008. 7. 28-7. 31	제29회 교회음악하계대학 획기적 합창세미나, 영락교회 베다니홀, 871명
2009. 7. 27-30	제30회 교회음악하계대학 획기적 합창세미나, 영락교회 베다니홀, 955명
2010. 7. 26-29	제31회 교회음악하계대학 획기적 합창세미나, 영락교회 베다니홀, 1096명
2011. 7. 25-28	제32회 교회음악하계대학 획기적 합창세미나, 영락교회 베다니홀, 1082명
2012. 2. 17-18	제1회 동계세미나 지휘, 발성 실기 워크숍, 서울신대 존 토마스홀
2012. 7. 30-8. 2	제33회 교회음악하계대학 획기적 합창세미나, 영락교회 베다니홀, 981명
2013. 7. 29-8. 1	제34회 교회음악하계대학 획기적 합창세미나, 영락교회 베다니홀, 1062명
2014. 7. 28-31	제35회 교회음악하계대학 획기적 합창세미나, 영락교회 베다니홀, 912명
2015. 7. 27-30	제36회 교회음악하계대학 획기적 합창세미나, 영락교회 베다니홀, 945명
2016. 7. 25-28	제37회 교회음악하계대학 획기적 합창세미나, 영락교회 베다니홀, 952명
2017. 7. 31-8. 3	제38회 교회음악하계대학 획기적 합창세미나, 사랑의 교회, 1073명
2018. 7. 30-8. 2	제51회 교회음악하계대학(제22회 획기적 합창세미나), 사랑의 교회, 975명
2019. 7. 29-8. 1	제52회 교회음악 하계대학(제23회 획기적 합창세미나), 사랑의 교회, 987명

* (이사회에서 2018년부터 앞의 교회음악강습회를 포함하는 전체 횟수로 정리함)

** 강습회-하계대학-획기적 합창세미나-성가곡 소개 및 합창지휘 실기전문 워크숍

5. 성가합창제

1951년, 크리스마스 대 연주회를 시작으로 1982년까지 제12회까지 개최하였고, 1960년에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성가경연대회** 기획하여 1978년까지 총16회를 개최하였다. 제1회 **한국성가합창제**를 1992.5.23(이관섭) 햇빛회관에서 열 두 교회로 시작하여

2011. 6.4.영락교회에서 제20회까지 계속되었다. 그 이후는 성가마라톤, 초청연주, 또는 각 지역별로 성가합창제가 이루어졌다.

6. ‘**뉴스레터**’를 1996년(윤학원) 창간호로부터 2021년 3월 1일 115호를 발행하였다(김동민, 김용훈) 제 1,2,3호 등 보관되어 있지 않은 몇 호를 찾고 있다.

7. 학술포럼

제1차 교회음악 심포지움(1964.7.5. YMCA강당 발표: 김동수 목사, 박봉배 교수, 이동훈 교수)을 개최하였다.

* 소세미나

- 1994 월례회, 교회에서 대중악기 사용의 이유 및 문제점(이문승) 한일관
- 2016. 4. 10, 칼빈의 제네바 시편가 및 현대적 활용(주성희) 사랑의 교회 B506
- 2016. 5. 15, 음악신학, 기독교의 본질을 향한(장우형) 사랑의 교회 B506
- 2016. 6. 12, 음악의 상징~ 하나부터 열까지(김용훈) 사랑의 교회 B506
- 2016. 10. 9, 합창 Sound(소리, 음, 음향)의 이해(양은호) 사랑의 교회 B506
- 2017. 5. 14, 종교개혁 500주년과 독일합창의 새로운 시도(장우형) 사랑의 교회 B506
- 2017. 6. 11, 모테트의 역사 속에 자리한 바흐(김선아) 사랑의 교회 B506

* 50주년 기념 세미나 2001.10.11. 영락교회

- 제2차 학술포럼, 영락교회, 교회음악과 복음주의 정신과 현실(하재은),
전통 교회음악과 현대교회음악과의 관계성(백승남) 토론자: 김성대, 박양식
- 제3차 학술포럼, 2009.2.26. 전통적 예배의 교회음악-그 변화의 필요성과 전통의 당위성
(이문승), 경배와 찬양 위주 예배의 교회음악-그 평가와 변화의 방향성(장우형)
- 제4차 학술포럼, 2010.2.6. 아현교회, 문성모 찬송가의 한국화- 그 역사와 전망
한국적 교회음악(우효원)-새로운 한류 질의(김용훈), 연주(윤의중)
- 제5차 학술포럼, 2011.3.26. 영락교회 503세미나실, 조화의 미를 추구하자(하재송),
교회음악 전공의 현실과 미래의 제안(양정식),
한국교회 전임 음악사역자 직위의 미래(이상일), 21C한국교회음악의 전망(장우형)
- 제6차 학술포럼, 2013.5.4. 신촌성결교회 성봉채플, 남북한 교회가 함께 부를 노래(이상일)
대북방송과 미디어를 통해 살펴 본 북한 지하교회의 유형과 예배음악 실태(이사야 부장)
- 제7차 학술포럼, 2014.11.29. 사랑의 교회 B506, 시대별 음악 언어의 특징(장우형),
바로크 합창음악의 연주기법(김선아)

- 제8차 학술포럼, 2015.11.28. 사랑의 교회 B506 교회음악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하재송)
교회음악이 아디아포라인가?(장우형)
- 제9차 학술포럼, 2016.11.5. 사랑의 교회 B506, 르네상스의 리듬과 템포(장우형),
낭만 이후 교회음악에 나타나는 템포의 다양성(김용훈)
- 제10차 학술포럼, 사랑의 교회 B506, 종교개혁과 교회음악(하재송) 질의자(장우형)
- 제11차 학술포럼, 2018.11.24. 사랑의 교회 B506, 목회자와 교회음악지도자 : 대화(1)
교회음악지도(목회)자 현황과 제도에 관한 소고(양정식) 좌장, 하재송, 토론, 문성모
- 제12차 학술포럼, 2019.11.16. 사랑의 교회 B507. 목회자와 교회음악지도자: 대화(2)
음악목회, 한국에서 가능한가? 하재송, 박동훈, 이영록(토론)
- 제13차 학술포럼, 유튜브 채널, 2020.11.21. 코로나 시대의 교회음악사역 주제발표1
교육사역 양정식, 주제발표2 연주사역 임창은, 주제발표3 교회사역 김용훈, 종합토론 하재송
- 제14차 학술포럼 2021.11.27. 사랑의 교회 B506. 한국교회음악협회: 회고와 전망(이문승, 하재송)
패널토론: 발제자, 박신화, 양정식

유튜브 특별강좌

2021. 3. 3월 유튜브 특별강좌, 한국교회음악협회(박신화 이사장)
2021. 4. 4월 유튜브 특별강좌, 찬양대의 효과적 조직 구성과 역할(윤의중 부이사장)
2021. 5. 5월 유튜브 특별강좌, 교회음악의 원로를 만나다(윤학원 고문)
2021. 6. 6월 유튜브 특별강좌, 찬양사역의 성경적 의미와 유형(이상길 고문)
2021. 7. 10월 유튜브 특별강좌, 교회음악의 원로를 만나다(오진득 고문)

8. 교회음악인 추모예배

- 제1회 교회음악인 추모예배(1980.11.16.) 남산감리교회,
김치목, 박원정, 장수철, 이동훈, 이삼은 말스베리, 루츠
- 제2회 교회음악인 추모예배(1990.7.1.) 중앙감리교회
박태준, 최성진, 김정해, 김상익, 김종일
- 제3회 교회음악인 추모예배(2001.11.7.) 중앙감리교회
김노현, 나운영, 이동범, 김홍경,
- 제4회 교회음악인 추모예배(2010. 11. 17.) 산성교회,
김두완, 김순세, 김영철, 백태현, 서수준, 이단열, 이유선, 이응파
- 제5회(코로나로 연기) 이관섭(1936-2011), 한태근(1928-2015), 이수철(1944-2011),
박영근(1947-2016), 구두회(1921-2018), 김철륜(1951-2019),
유병무(1938-2020) 박재훈(1922-2021.8.2.),

9.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2011년 하계대학 중 기념예배

박태준박사(남대문교회), 이유선박사(남산교회) 찬송비 건립

10. 현재의 본 협회 이사 및 조직

- 고 문 : 윤학원 김형석 오진득 이문승 전희준 안경재 여흥은 이대구 이상길 이병직
- 직전이사장 : 이기선
- 이 사 장 : 박신화 ●부이사장 : 윤의중 ●사무국장 : 임창은 ●사무차장 : 공기태
- 서 무 이 사 : 한창석 ●부서무이사 : 박동희 ●재무이사 : 홍권옥 ●부재무이사 : 김선아
- 감 사 : 고덕환 강기성
- 각 분과 및 위원장 : 하계대학분과(이상길), 역사편찬분과(이문승), 학술분과(하재송), 홍보분과(김용훈)
- 이 사 : 강영모 강옥민 구 천 권영일 김경란 김동민 김명엽 김성균 김영호 김옥자 김용훈 김은석
김인재 김희영 김희철 노영아 민인기 박창훈 석성환 손효동 신현민 신호철 양은호 양정식
오윤희 유병용 윤태빈 윤학봉 이근엽 이동훈 이상훈 이선우 장우형 전영혜 정승택 주성희
차영희 최경열 최훈차 하재송 홍정표 황철익 (가나다순)
박지훈 백정진 우효원 이민영 조현진 (신임이사)
류한필 박원선 박장우 임한귀 이현철 전은배 최낙기 (추천이사)
- 당연직이사 : 김인주(포항) 박종학(대전) 조기용(경기남) 이승욱(울산) 장철진(목포) 마광휘(인천) 김 돈(영남)
김성식(순천) 김희송(안산) 박희분(청주) 오승진(광주) 박철성(여수) 황녹연(천안) 박형주(광양)
- 편집 위원 : 김용훈 박장우 류한필 ●간 사 : 임은희

빛으로의 한국교회음악협회

1. 한국교회음악협회는 한국교회의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한 한국교회 부흥의 도구요, 예배 발전의 산실이였다. 1951년부터 지금까지 협회 중앙위원 및 이사들은 개 교회에서 교회음악 사역은 물론 각종 음악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음악 문화를 선도하고 중,고등부를 포함하여 교회음악인 교육에 전심전력을 다하였다. 특별히 교육을 통하여 성가대 지휘, 반주자 양성하는데 힘을 모았다. 연합성가대를 구성하여 성탄 및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성가경연을 통하여 미래세대를 육성하였다. 위원들은 어린이 성가를 개발하여 한국교회 부흥의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초기부터 지금까지 교회음악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교회 예배음악의 수준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높였다.

선교적 측면으로는 1973년에는 대회 주최 측과 협력하여 여의도 빌리그레함 전도대회에 연합성가대를 구성,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하였고 1974년에는 엑스포로'74 연합성가대를 연인원 9만명 동원하여 한국교회 부흥에 크게 이바지하였다(연합지휘 이동훈)

선교100주년 음악회(1984) 등...

2. 본 협회는 한국교회음악 및 음악계의 심장이었다. 한국교회음악협회는 교회음악 전문가를 영입하여 한국

교회음악을 주도하고 찬양의 영역을 점차 넓혀갔다. 획기적 세미나의 성가 마라톤은 최고의 전국단위 발표의 장이 되어, 전국교회,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독일 등의 지휘자, 합창단 지휘자, 교회음악작곡가가 모두 모인 **세계적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 * 교회음악연주회, 웨스트민스터 합창단 내한 연주, 순회연주회, 교회음악감상회, 선교합창단 교회음악 전문잡지
- 『교회와 음악 1-7』(박재훈 1963-65)
- 『교회음악』(복간호 전희준, 1974-1992)
- 『교회음악』(김두완, 아가페음악선교원 1992-)

〈이사들과 선교합창단〉 all

- * 여러 가지 이유로 누락이 있을 것입니다. 추후라도 알려주시면 자료에 추가하겠습니다.
- 필그림성가단(이동훈, 김명엽)
- 선명회어린이 합창단(월드비전 한국 어린이 합창단, 장수철, 박재훈, 김종일, 윤학원, 최시원, 김희철,...)
-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박태준, 김홍경...)
- 성종합창단(곽상수)
- 시온성합창단(이동일)
- 아넬성가단(남성, 황임춘)
- 서울코랄(박재훈)
- 첼버코랄(이관섭...)
- 마드리갈합창단(윤학원)
- 서울 레이디 싱어즈(윤학원, 윤의중...)
- 윤학원코랄(윤학원)
- 아가페합창단(김두완)
- 아가페 코랄(의정부, 동두천, 강옥민)
- 아가페콰이어(노영아)
- 메시아합창단(김정해)
- 대학합창단(최훈차, 박동희...)
- 최훈차콰이어(최훈차)
- 코리아남성합창단(서수준, 유병무...)
- 국제선교합창단(이응파)
- 송실OB남성합창단(이영두...)
- 람파스 콰이어(고덕환)
- 서울바하합창단(김명엽)
- 울챔버 콰이어(이기선)
- 더 보이즈 챔버콰이어(이병직)
- 이코랄(이상길)
- 솔리데오 장로합창단(석성환)
- 솔리데오 여성합창단(홍권옥)

아이노스합창단(이선우)
 코랄 앙상블(양정식)
 서울마펫콰이어(박창훈)
 요벨스 합창단(손효동)
 서울 챔버 싱어즈(차영희)
 서울 마스터즈 콰이어(임창은)
 HIM Chamber Choir(하재송)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김선아)

3. 획기적세미나 수강자 설문 내용(일부 요약, 발췌)

대부분 지휘자, 소수 반주자, 극소수 대원, 극소수 교역자.
교회부담 혹은 일부 교회 부담을 합하니 75%를 넘어, 85%가 되었다.
 72%-만족, 대만족을 합하니...

선호하는 강좌는 감동적 강의, 감성적 강의, 준비 많이 한 강의였다.

일반적으로 리딩, 강의 확대를 원함

희망 강의: 여성성가의 필요성

발성지도의 구체적인 테크닉을 배우기를 원함

지휘실습 중심의 강의 원함

작은 교회를 배려하여 소규모도 가능한 찬양곡, 쉬운 곡의 필요성

곡 해석에 따른 구체적 지휘법을 듣기 원함

새 성가는 선택 강의보다 전체강의를 들어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리딩세션, 합창발성, 등 강의의 확대를 원하며, 세미나 횟수가 거듭함에 따라 많은 디테일을 희망하고 있어 선택과목을 순환적으로 개설해야 하고 이를 확대해야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본회는 한국교회의 **예배 성가곡** 공급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 1) 초기부터 중앙위원들은 성가대 악보 발간에 힘을 기울였다. 주로 외국 곡을 번역, 출판하기 시작하였다. 그중 미파사(이재문), 악원사(이남철)는 많은 곡을 한국에 소개, 보급하였다.
- 2) 『어린이찬송가』 편찬(1968년 3.15. 교회음악사 발행, 222곡)을 본 협회가 하여 **한국교회 어린이들의 신앙교육 및 한국교회 성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
- 3) 이전에도 한국인에 의한 창작곡이 있었으나 양은 적었고 주로 외국 곡을 소개하는 형편이었다. 2000년 이후 협회는 한국인이 많은 곡을 창작하도록 길을 열었다. 외국 출판사와의 저작권 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윤학원, 오진득, 이문승 고문 등을 중심으로 **한국 창작성가**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중앙성가, 코러스센타, BNB, 기음, GCM) 좋은 작곡가를 많이 배출하였고 좋은 곡들을 창작, 공급하였다.
- 4) 『**개편찬송가**』 발행에 협회 위원들이 중심으로 참여(1967년)하였다.
- 5) 2006년, 한국찬송가공회 『**21세기찬송가**』 발행 시 본 협회 이사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 6) 한국교회음악협회의 활동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위한 큰 줄기 **찬양의 빛**이었고 **선교의 으뜸** 도구였다.

발 제 2

한국교회음악협회: 앞으로 나아갈 길

하 재 송 교수

(충신대학교 교회음악과, 본협회 학술분과위원장)

코로나 19 사태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영역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이전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처럼 우리나라도 소위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종식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것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일상 회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계에서도 현재 코로나 이후의 교회 사역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방역지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상당한 제한을 감수해야 했던 예배와 교회음악 사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음악협회(이하, 우리 협회 또는 협회)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했다.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음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교회음악 정책과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기 위해 우리 협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 협회의 학술분과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학술포럼을 위해 수차례 오프라인과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 협회가 힘써 온 여러 사업들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고 그와 함께 앞으로의 협회 사역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한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 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기본 정신 및 방향: 변화와 도전, 사역의 다변화

지난 70년동안 우리 협회는 다양한 사역을 전개해 왔다. 교회음악 하계대학, 한국 성가합창제, 학술포럼 등 주요 사업 외에 한국교회음악의 발전을 이끈 교회음악가들을 위한 추모음악회, 성가곡집 발행 등 한국교회음악계 전체를 아우르며 한국교회음악의 수준 향상과 발전을 주도해 왔다. 그리고 각 주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교회음악 현장의 시대적이며,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꾸준히 변화를 모색해 왔다. 교회음악 하계대

학만 하더라도 1997년부터 ‘획기적 합창 세미나’로 체제와 내용을 개편하여 최근까지 운영해 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와 도전’의 노력은 교회음악 하계대학 수강생의 비약적인 증가와 하계대학의 영향력 증대로 나타났으며, 교회합창곡 창작, 출판, 연주 등 한국교회음악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협회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는 점점 더 전문화, 다양화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또한 전문적인 분야들이 융합되어 새로운 분야가 창출되기도 한다. 악기로 말하자면,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악기들의 소리를 오늘날에는 신디사이저(synthesizer)라는 악기를 통해 개별적인 오케스트라 악기 소리뿐만 아니라 융합된 오케스트라 소리도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실 음악 분야는 다른 일반 분야에 비해 훨씬 더 전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구조 속에서 음악 사역은 대부분 연주활동 중심의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 온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전문화, 다양화라는 시대적인 흐름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최근의 환경 속에서 교회음악 사역의 다변화는 필연적인 길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우리 협회는 한국교회음악계의 다양한 요구를 취합하고 반영하여 전문적이며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음악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교회음악 관련기관들과의 협력 강화

현대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이다. 고도로 전문화되고 분업화된 사회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개인이나 집단, 조직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우리 협회가 더욱 발전하고 사역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회, 교단, 출판사 등 관련기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2.1. 협회와 학교의 협력

우리 협회는 지금까지 학교, 특히 교회음악과가 있는 대학교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교회음악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굳이 어떤 협력관계를 찾자면 획기적 합창 세미나 때 필요한 보조인력을 주로 협회 이사가 있는 대학교의 학생들로 충원하거나 협회 행사에 협회 이사들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협회가 교회음악계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와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한국교회음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차세대 교회음악인을 양성하는 데에 있어서 학교와의 협력은 무엇보다 필요한 요소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교단 신학대학교를 포함하여 여러 기독교계 대학교에는 교회음악과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교회음악대학원 또는 교회음악관련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 그러한 학교들의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지휘자, 반주자, 독창자, 기악연주자, 찬양사역자, 편곡자 등 다양한 직임을 맡아 교회음악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대부분이 교회에서 교회음악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음악만 전공했다면 교회음악 전공 유무와 상관없이 거의 동일하게 인식되고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 일반사회에서는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인식과 대우가 달라지는데 우리나라 교회 현장에서는 교회음악에 대한 전문성을 거의 따지지 않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에서의 음악 사역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본다. 교회에서는 일반음악이 아니라 교회음악을 하는데 교회음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문성도 없이 어떻게 교회음악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현실에서 협회와 학교의 협력 프로그램으로 구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음악전문 자격증 제도이다. 물론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경우 교단적으로 음악목사와 음악전도사 제도가 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에는 교회음악사 자격증 제도가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상황이다.¹⁾ 따라서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교회음악전문 자격증 제도를 우리 협회가 교회음악을 가르치는 학교와 협력하여 만들어 운영한다면, 한국교회 전체에 커다란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격증은 한국교회 현실을 감안하여 교회음악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 음악전공자, 그리고 음악 비전공자까지 포함하는 제도로써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사회 각부문의 전문 자격증은 공신력 있는 협회나 기관에서 대부분 수여한다. 따라서 교회음악전문 자격증의 경우 우리 협회가 수여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협회와 학교가 어떻게 협력하여 자격증 제도를 마련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음악치료관련 자격증 제도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한국음악치료학회’의 경우, ‘임상음악전문가’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수여하는데 “학회가 인정하는 국내의 대학교에서 음악치료 전공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학회에서 규정하는 임상실습 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와 “학회가 인정하는 국내의 대학교에서 음악치료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학회에서 규정하는 임상실습 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²⁾ 그리고 전국음악치료사협회는 “음악치료 전공(학사, 석사)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학교의 졸업 요건 충족)”로서 “인턴십 1040시간 이상 수료자(2012년 입학자까지 1000시간)”이고 “전국음악치료사협회 일반회원”인 자가 자격 시험에 합격할 경우 ‘음악중재전문가’ 자격증을 수여한다.³⁾ 이상 두 종류의 음악치료관련 자격증들은 모두 학교 교육과 연계된 전문 자격증이므로 우리 협회가 학교의 교회음악 교육과 연계하여 교회음악전문 자격증 제도를 수립하는 데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일반음악 전공자와 음악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학교 교회음악 교육에 준하여 협회가 교회음악 사역에 필수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교회음악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회음악전문 자격증은 학력과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 등으로 등급을 나누어 수여해도 될 것이다.⁴⁾

이러한 교회음악전문 자격증 제도의 수립과 운영에는 물론 많은 연구와 토론,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격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교회 전체의 이해와 협력 또한 필수적이다. 따라서 그것은 매우 지난한 작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격증 제도가 안착되어 교회음악 사역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교회음악인들이 지속적으로 양성되고 교회 현장에서 그들이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아름다운 사역의 결실들이 나타나게 되면, 한국교회음악의 활성화와 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교회 안에서 교회음악 사역자들의 지위와 대우 또한 향상될 것이다.

2.2. 협회와 교단, 교회의 협력

교회음악 사역은 한국교회 여러 교단과 교회의 협력 없이는 활성화되기 어렵다. 이는 대부분의 교회음악 사역의 현상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교회음악 사역자들(지휘자, 반주자 등)은 교회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협회의 획기적 합창세미나에 참석하곤 했다. 이것은 교회가 재정을 지원해서 협회에 교육을 위탁한 것으

1) 이상일, “음악사역자에 대한 담임목사들의 의식과 음악사역자 제도에 관한 연구-예장통합 교단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6/4 (2014): 422-425 참고.

2) “자격규정”, <http://www.musictherapy.or.kr/html/sub0401.html>, 2021년 11월 25일 접속.

3) “음악중재전문가 자격 시험 안내”, <http://nakmt.or.kr/page/s0502.php>, 2021년 11월 25일 접속.

4) 독일의 교회음악 교육 사례도 참조.

로 협회와 교회의 협력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협회가 한국교회음악의 발전과 교회음악인들의 사역과 지위 향상을 위해 한국교회 교단과 교회와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을 것이다. 우선 첫째로, 현실적으로 시급한 과제는 협회가 코로나 19 이후의 교회음악 사역을 위해 실제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들을 교회 현장에 제공해 주는 것이다.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말미암아 교회 현장에는 과거처럼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고, 최소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이는 찬양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찬양대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들이 교회 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협회가 도울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협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소규모 찬양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방법들을 공유하고 모범사례도 소개하고 필요한 음악적, 행정적 자료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음악학계에서는 합창 중심의 찬양 대신 기악 앙상블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는데, 지금은 부족한 기악 앙상블 찬양곡들을 충분히 제공하는 일도 협회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협회는 교회 현장의 필요에 맞게 잘 훈련된 교회음악 전문가와 교회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 협회의 정회원은 임원회의 기초적인 심사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그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정회원 이상의 협회 구성원들은 잘 준비된 교회음악적 자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음악전문 자격증 제도가 현실화되어 시행된다면 그 인력풀은 대폭 확대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협회를 통해 각 교회 현장에 맞는 사역자를 훨씬 더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로, 협회는 교회 현장에서 교회음악 사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목회자에 대한 교회음악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회음악계가 신학교 목회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 관해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해 온 것은 신학생에게 교회음악 교육을 거의 하지 않아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경우 교회음악적인 소양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음악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목회자들에 대한 교회음악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교회음악 교육을 위해 목회자들이 다시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그 대신 우리 협회가 그들에게 기초적인 교회음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협회는 명실공히 국내 최고 최대의 교회음악관련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로, 협회는 각 교단 교회음악부 또는 교회음악관련 조직과 협력하여 상호간에 유익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 예컨대, 교단 산하의 교회음악관련 정책 연구, 교회음악 세미나나 워크숍(workshop), 성가합창제, 찬양대회 등에 협회의 전문인력과 관련단체가 다양한 자격으로 함께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한국교회를 위해 새로운 찬송가 편찬 작업을 선도할 수 있다. 우리 협회는 우리나라 교회음악계를 이끄는 연주자, 작곡가, 학자, 목회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 구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현행찬송가의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찬송가를 편찬하는 작업을 실무적으로 진행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즉 학자들은 찬송가 편찬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작곡가들은 찬송시에 잘 맞고 특히 젊은 세대도 좋아할 수 있는 좋은 곡을 쓰고, 연주자들은 찬송가 연주상의 음악적 요소들을 점검하고, 목회자는 신학적인 면과 교회에서의 사용에 관한 부분들을 검토하는 등 협회 구성원들이 교단과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면 단기간에 매우 좋은 찬송가를 편찬할 수 있을 것이다.

2.3. 협회와 교회음악관련 기관의 협력

협회는 지금까지 특히 한국교회음악작곡가협회와 여러 교회음악출판사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국교회음악작곡가협회는 한국교회합창곡 창작에 크게 기여해 왔고, 교회음악출판사들은 협회의 획기적 합창세미나 자료들을 공급하고 수많은 찬양곡들을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보급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협회는 이 기관들을 포함하여 여러 교회음악관련 기관들과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한국교회음악의 전체적인 발전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협회는 한국교회음악의 중추기관으로서 교회음악계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⁵⁾ 그래야 한국 교회 또는 한국사회에서 교회음악관련 이슈가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협회는 유관기관들과 ‘상생 협력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교회음악관련 기관들은 교계나 음악계에서 아직 힘과 영향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대부분의 교회음악출판사는 매우 영세하므로 그들과의 상생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 협회 주최 행사에는 교회음악 관련 기관이나 업체들이 가급적 모두 참여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음악 창작, 출판, 보급, 연주 등에 있어서 상생을 위해 전문화, 분업화의 길을 모색하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 협회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때로는 조정자의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

3. 온라인 사역의 활성화

코로나 19 사태는 전세계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온라인 활동의 급격한 확대와 증가를 가져왔다. 음악 활동에 있어서도 유튜브(YouTube) 활용이 크게 확대되었고, ‘가상 합창단(virtual choir)’과 같은 새로운 시도가 적잖이 행해졌다. 유튜브에는 수많은 교회음악관련 영상물도 올려져 있다. 그런데, 그러한 영상물 대부분은 연주 영상이고, 교회음악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contents)는 별로 없다. 물론 인터넷에는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이 방대한 교회음악관련 자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얻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단편적인 자료들을 취합해서 사용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교회음악에 대한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으면서 관련 링크들도 제공하는 ‘온라인 교회음악 플랫폼(platform)’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 협회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이 장차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한국교회음악의 획기적인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 협회가 온라인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온라인 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제작,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콘텐츠 개발과 제작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투자도 필요하고,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는 정보교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점점 더 이동하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투자라고 생각된다. 이제 기본적으로 교회음악, 교회음악 연주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가 준비되어야 하고, 교회에서의 음악 사역에 필요한 실제적인 콘텐츠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 협회가 교회음악전문 자격증 제도와 목회자 교회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그와 관련된 다양하고 체계적인 온라인 교회음악 교육 콘텐츠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4. 조직개편의 필요성

이상에서 제시된 단기적, 중장기적 사역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회의 정책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공신력을 더욱 강화하여 교계와 교회음악계의 포괄적인 협조

5) 전도서 4:12,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맞는 조직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우선 협회가 사회적으로 더욱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협회의 사단법인화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협회의 정책을 총괄하는 이사회 산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또는 별도 조직으로서 ‘정책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협회와 교회음악 관련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협회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협회 대표, 교계 대표, 관련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된 포괄적인 자문그룹을 협회에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하고, 앞으로 협회의 사역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협회의 세부조직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협회 70년의 역사와 사역을 돌아보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급격히 변화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앞으로 협회가 어떤 정신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그중에는 즉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방향을 정하고 좀 더 연구하고 준비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잠언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대로 인간의 모든 계획과 구상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 어떤 계획일지라도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역대 이사장(회장) 및 임원진

	연 도	이 사 장	부 이 사 장	사 무 국 장
1 대	1951 - 1952	김치목	박학전	윤심원
2 대	1952 - 1955	김치목	한인환	김노현
3 대	1956 - 1957	김치목	나운영	김노현
4 대	1958 - 1959	김치목	한인환	곽상수
5 대	1960 - 1963	박태준	한인환	이동훈
6 대	1964 - 1967	박태준	한인환	구두회
7 대	1968 - 1969	박태준	한인환	박재훈
8 대	1970 - 1971	박태준	이유선	이남철
9 대	1972 - 1973	박태준	이유선	김두완
10 대	1974 - 1975	이유선	서수준	김정해
11 대	1976 - 1977	이유선	김정해	김홍경
12 대	1978 - 1979	서수준	구두회	김홍경
13 대	1980 - 1981	구두회	최성진	김홍경
14 대	1982 - 1983	최성진	김정해	김홍경
15 대	1984 - 1985	김두완	김홍경	황철익
16 대	1986 - 1987	김두완	김홍경	이관섭
17 대	1988 - 1989	김홍경	백태현	이관섭
18 대	1990 - 1991	백태현	이관섭	안경재
19 대	1992 - 1993	이관섭	윤학원	김형석
20 대	1994 - 1995	이관섭	윤학원	김형석
21 대	1996 - 1997	윤학원	김형석	오진득
22 대	1998 - 1999	윤학원	김형석, 전희준	오진득
23 대	2000 - 2001	김형석	전희준, 오진득	박영근
24 대	2002 - 2003	오진득	박영근, 전희준	이수철
25 대	2004 - 2005	오진득	박영근, 이수철	이문승
26 대	2006 - 2007	이수철	박영근	이문승
27 대	2008 - 2009	박영근	이문승	이대구
28 대	2010 - 2011	이문승	이대구	장우형
29 대	2012 - 2013	이대구	이상길	이병직
30 대	2014 - 2015	이상길	이병직	고덕환
31 대	2016 - 2017	이병직	박신화	이기선
32 대	2018 - 2019	이기선	박신화	임창은
33 대	2020 - 현재	박신화	윤의중	임창은

2021년 한국교회음악협회 이사회

- 고 문 : 윤학원 김형석 오진득 이문승 전희준 안경재 여흥은 이대구 이상길 이병직
- 직전이사장 : 이기선
- 이 사 장 : 박신화 ● 부이사장 : 윤의중 ● 사무국장 : 임창은 ● 사무차장 : 공기태
- 서 무 이 사 : 한창석 ● 부서무이사 : 박동희 ● 재무이사 : 홍권옥 ● 부재무이사 : 김선아
- 감 사 : 고덕환 강기성
- 각 분과 및 위원장 : 하계대학분과(이상길), 역사편찬분과(이문승), 학술분과(하재송), 홍보분과(김용훈)
- 이 사 : 강영모 강옥민 구 천 권영일 김경란 김동민 김명엽 김성균 김영호 김옥자 김용훈 김은석
김인재 김희영 김희철 노영아 민인기 박창훈 석성환 손효동 신현민 신호철 양은호 양정식
오윤희 유병용 윤태빈 윤학봉 이근엽 이동훈 이상훈 이선우 장우형 전영혜 정승택 주성희
차영희 최경열 최훈차 하재송 홍정표 황철익 (가나다순)
박지훈 백정진 우효원 이민영 조현진 (신임이사)
류한필 박원선 박장우 임한귀 이현철 전은배 최낙기 (추천이사)
- 당연직이사 : 김인주(포항) 박종학(대전) 조기용(경기남) 이승욱(울산) 장철진(목포) 마광휘(인천) 김 돈(영남)
김성식(순천) 김희승(안산) 박희분(청주) 오승진(광주) 박철성(여수) 황녹연(천안) 박형주(광양)
- 편집 위원 : 김용훈 박장우 류한필 ● 간 사 : 임은희



한국교회음악협회
KOREA CHURCH MUSIC ASSOCIATION

<http://www.koreacma.org>

Tel. 02-3663-0771 / 02-868-4580

Fax. 02-3663-0772

우. 0879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76(봉천동) 지하 1층